

종로 학원

서울대에 매년 500명 이상을 합격시키고
수능시험 인문계 전국 1, 2, 3위를
배출한 종로학원의 丁庚巖 회장 인터뷰



사진: 이진호

『엄격한 규율 세워 공부 많이 시키는 게 비결』

李根美 자유기고가 (gosus@netago.com)

종로관 우수 집단이라는 의미

「종로는 서울의 한 지명이지만 언젠가
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집단이란
의미가 되었다.

대학입시전문 종로학원의 안내책자에
나는 문구이다. 매년 서울대 합격생을
500명 이상 배출하는 종로학원의 고교 평
준화 정책 아래서 명문고의 자리를 대신
하고 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다는 2002학년

도 수능시험에서 종로학원
출신이 인문계 전국 1, 2, 3
등을 휩쓸었다. 재수생이
1, 2, 3 등을 휩쓴 것은 실수
면만 채운 것인 일이다.
종로학원 丁庚巖(정경진-
72) 회장은 「재수생이 강세
를 보이는 건 교육부에서
별로 평가하지 않는 일,
종로학원이 부각되는 것도
마찰가지라미 웃었다.

종로학원이 제공한 자료
에 따르면 1989년도 입시
에서 서울대 전체수석을 비
롯하여 10개 명문대학의
전체 수석을 석권 했다.
1991년에는 서울대 1023
명, 연세대 900명, 고려대
342명이 합격하여 명문대
합격자 세 명 중 한 명이 종
로학원 출신이었다. 당시
한 학급에서 77명이 서울
대에 들어가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매년 종로학원
출신이 서울대 1000여 명, 연세대와 고
려대에 1000여 명으로 모두 2000여 명이
명문대에 들어갔다. 이후 서울대 합격자
숫자가 줄어 1997년에 519명, 1998년
583명, 1999년 502명, 2000년 535명,
2001년 558명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합
격을 합치면 매년 1500명 정도 된다. 종로
학원은 2002학년도 합격생 정보를 수급
중인대 시험이 어려웠던 만큼 예년보다 서
울대 합격생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1997년부터 종로학원의 서울대 합격

재수생들을 공부시키면서
홍안은 물론 옆집도 급하고
세 번 무단 결석하면
제적시킨다. 丁庚巖 회장이
나라에 바라는 것은 학원권편
대행이 아닌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그는 「교육이 잘 되어 학원이
사라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미국의
하류층 교육을 열린
교육이라고 배워 와서
하위평준화 교육을 시키는
위선적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 줄어든 이유는 입시제도
와 학생들의 생각이 달라졌
기 때문이라고 한다. 복수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
울대에 떨어진 뒤 다른 학
교에 가는 학생들이 늘어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재수를
하는 숫자가 줄었다고 한
다. 지원학과를 잘못 선택
무조건 서울대에 들어가는
경향이 사라지고 대학보다
학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
생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
히 理科계통 우수학생들이
선호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상위 대학이 거의 평균화되
어 반드시 서울대만 고집하
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원인
이라고 한다.

명문대 합격생이 많다 보
니 명문대학에 종로학원 통
문회가 조직되는가 하면,
학생회를 장악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나
이가 한 살 많은데도 이미 학원에서 열
을 익힌 사이이니 종로학원 출신들의 결
속력은 단단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에
종로학원 출신들이 민주화운동의 선두주
자가 되는 일이 많았다. 종로학원 출신 가
운데 이름난 대만 누구나 아는 두 사람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국연문고교사 연립

종로학원은 서울 강북의 중랑동과 서울
강남의 삼성동 두 곳으로 나뉘어져 운영

되고 있다. 강북 34만, 강남 2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반의 정원은 50명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반에 70명이었으나 정원을 50명으로 줄여 모집인원이 500여 명에서 300여 명으로 줄었다. 대신 월 수강료를 3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렸다. 전체 학생 가운데 지방에서 온 학생이 3분의 1 가량이다. 여학생의 비율도 3분의 1 가량이라고 한다.

종로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대학 입시보다 치열할 지경이다.無し院으로 3분의 2를 뽑고 有시험으로 3분의 1을 뽑는다. 일찌기 성적순이다. 올해의 경우 대입전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1월21일부터 현장을 접수했다. 영어 수학 국어의 수능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서대로 뽑는다.無し院 전형은 단 이틀 만에 정원이 다 찼고, 有시험 전형은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키드리아이 행한한 명문대 합격 점수와 맞먹을 정도이며 대리시험을 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삼수생의 경우 재수생보다 점수가 10점 정도 높아야 합격할 수 있다.

종로학원이 명문대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인터뷰에 응한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실력 있는 교사'가 우수한 학생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꼽는다. 丁院長 회장은 학원 운영의 성공 비결을, 「교사 출신이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육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의 일부 사무직을 제외한 모두가 교사 출신입니다. 원장, 학과, 각 분야 실장 등 요직을 맡은 이들도 물론 모두 교사 출신입니다.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과 교사 출신 운영자는 다를 수밖에 없죠. 교육은 교육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丁院長 회장은 경기고등학교 수석생 출신이다. 그는 가장 형편이 어려워서 김경교사를 통해 서울대 공대에 진학, 수학을 전공했다. 입학금 8000원이 없어 등록을 못하고 있을 때 안성농협학교 서부주임이 1만원을 빌려 주어 대학교에 들어갔다. 6·25 전쟁 직후라 교사가 부족해 대학생은 바로 교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제도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로 일해 무사의 졸업했다고 한다.

후일 경기도 교사가 되었으나 교사 월급으로 대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어 1965년에 인사동에 단국학원을 차린 것이 오늘날 종로학원의 호시이다. 그는 「수학」의 완성, 제 지자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창립 3년 후에 단국학원에다 종합학원으로 바꾸어 지금까지 종합반만 운영하고 있다.

丁院長 회장이 가장 장점을 꼽은 부분은 교사 채용이다. 丁회장은 철저히 실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 교사 중 많은 숫자가 평문과 이전 지방 평문고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이다. 이들을 학원으로 초빙하기 위해 丁회장은 공을 많이 들였다. 우선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출신학교에서 누가 잘 가르치는지 파악을 한다. 그런 다음 丁회장이 직접 몇 차례에 걸쳐 학교를 방문했다고 한다.

三峯草院(삼고초리)을 하여 전국의 명교사들을 많이 초빙해 왔다. 예전에는 학원이 처우가 나았으나 요즘은 학교 교사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고 한살제도 좋아 교사를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저는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과 직원들에게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좋은 학원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관공서를 무시위하치 말고 학생과 학부형을 무시위하치 그들에게 신의를 지키라고 하죠」

현재 92명의 교사 가운데 세 명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세 명 중 두 명은 한국외국어대학 일본어과 출신이고 나머지 한 명은 노스캐롤라이나 州立大學 경제학 박사이다.

『다른 분야는 다른 대학 출신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교사 출신이 가장 잘 가르친다는 것이 저의 오랜 경험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영어 전 학원 강사들의 가짜 학력이 문제가 되었는데, 종로학원은 안내 책자에 교사들의 졸업년도까지 표기를 해놓았다.

무명강령명 노조 필요하다

白南社 상임집장은 종로학원의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학원은 존의 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원은 강의 중심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 문제를 풀지 않고 책만 갖고 개념 설명을 합니다. 확실하게 모든 개념을 이해시킨 뒤 9월부터 수능 때까지 한달 반 동안 문제 풀이를 하면서 복습을 시킵니다. 확실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거나 쉽거나 흔들리지 않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종로학원은 교사들이 직접 집필한 책으로 공부해 가르친다는 데 걸림은 아예 없다

고 한다. 종로학원은 올해부터 수업을 255일제로 바꾸었다. 토요일은 쉬라는 사람에 한해 과목별 보충수업을 한다. 매일 30분간 듣기 평가를 실시하고 매일 한 번 시험을 치며 전국 고교과는 세 번에 걸쳐 시행한다. 얼마 前 某 대학학원의 노동쟁의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종로학원에는 노조가 없다. 丁院長 회장은 노조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노조가 발발하는 원인은 회사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회사와 신뢰를 주면 노조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제가 아주 인이 많은 줄 알지만 제 월급은 한 달에 600만원입니다. 회사일과 관련하여 돈을 쓸 때 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죠. 우리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완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丁회장은 종로학원의 주식을 51% 갖고 있지만 월급 이외의 수익은 항상 학원 발전을 위해 兩부자에 찔다고 한다. 교사들이 3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어 감독이 잘 이뤄진다고 말한다.

丁회장은 경영이 투명해야 교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 전과에 철저를 기했다. 10여 년 전부터 모든 수강료는 저리로 받았다. 요즘은 저리와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현금과 갖고 오는 경우 학원 앞에 있는 조흥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입금현황이 정확하니 탈세를 할 이유가 없지요. 교사들에게 모든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완전히 공개한 뒤 서로 의논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교사들에게 감사할 사항도 때리고 화서 경의 장부를 감사하

고 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사람을 데리고 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원분이라도 하러 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까?

丁희강이 가장 신경쓰는 분야는 교사 간의 화목이다. 교사 간의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종도학원에는 우열반이 없다.

「실명을 잘 하는 선생님들」에 대해 지적하고 싶는데, 劣班을 없으면 선생님이 먼저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예 우열반을 없앴습니까?

교사의 짧은 시험 출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종도학원에서는 실력 없는 교사가 견디내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먼저 교사의 실을 파악해 질문공세를 펼치기 때문에 실력 없는 교사는 스스로 나간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허튼 소리를 하는 교사로 없지만 여짜가 조금 엇나가는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할의를 한다 고 한다.

「강의는 생명입니다」

丁희강은 힘들게 공부를 했던 기억 때문에 1967년부터 용문 장학회를 설립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 주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山野 3년 평과 연급 10여원을 용문 장학회에 기부하여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서울을 교육청에 회피하여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을 주는 데 연간 8000만원 정도 집행한다. 종도학원 내에 설치한 자선기 수익금도 용문 장학회로 들어간다. 丁희강의 이러한 善行도 교사들을 결속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丁희강은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시험이 어려우면 종도학원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학원의 교사와 학생들은 일류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자립도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초, 우리 학원에 와서 비로소 공부다운 공부를 해봤다는 학생이 많습니까?

丁희강은 10년 전까지 강의를 하다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강의는 생명입니다. 끝까지 하고 싶었지만 나이 들어서 강의하면 애들이 싫어 할 것 같아 스스로 정년쯤 되어서 물러났지요. 강의를 그날을 때 까지 했지만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지요」

종도학원은 수능뿐만 아니라 논술과 면접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를 해 마지막까지 입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종도학원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유는 우수한 환경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한다. 실제로 강북과 강남캠퍼스는 평범한 대학보다 시험이 좋았다. 특히 학원 주변에 PC방이나 오락실이 별로 있어 학생들이 시간을 허비할 일이 없다고 한다.

요즘 학교에서 교사가 피조리를 들었던 가는 바로 학생들에 의해 고발당한단다. 하지만 종도학원에서는 피조리로 데리고 「일드려 편지」를 시키기도 숭순한단다고 한다. 丁희강이 처벌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5년 전부터 처벌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체벌을 하지 않는 대신 강력한 규칙을 정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규제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종도학원은 20년 전부터 전학생들에게 금연서약을 받고 있다. 하루에 네 갑씩 피우던 丁희강은 자신부터 금연을 한 후 학생들에게 금연을 강권했다.

「담배가 건강에 나쁘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더욱 작음을 다짐해 하기 위해서 금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학생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까까지 학생들이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선생님들도 금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 서약서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쉬는 시간에 복도가 언저로 꽉 차고 여기저기 담배꽂이가 굴러다녔다. 입학 당시 남학생의 90% 이상이 흡연자라고 한다. 丁희강은 집에서 어떻게 모르지만 학원에 있는 동안 모든 학생이 100% 금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연을 아예 학칙에 명문화하여 한 번 위반하면 반성문 작성, 두 번 걸리면 부모를 호출하여 바로 제적시키기로 했다. 학원전원 반경 200m 내에서 흡연해도 학원내 흡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학원 앞에서 나가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다.

「초창기에는 화장실 문을 낮게 만들어 세 앉으면 얼굴이 보이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한 거 아니냐」며 항의도 하고 반발도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우리 집에 전화로 걸어 「담배를 피우게

하면 학원을 퇴학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죠. 시행 첫해에 적응하지 못하고 몇몇 명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종도학원에 들어가면 금연해야 한다는 각오를 하고 와서인지 담배 때문에 그만두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규칙은 대단히 엄격하다. 오전 8시 30분까지 등교해야 하며 지각하면 벌점을 받는다. 방과후 6시 이후에는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는 못한다.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에 3분의 2 이상의 학생이 참여한다.

과식은 등교하는 순서대로 정해지고 남녀 합복은 안 된다. 결식할 때는 반드시 미리 신고를 해야 하고 세 번 무단결석하면 제적된다. 조퇴도 학부모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강한 규제가 정신적 노력

3월5일 학원을 둘러보았을 때 표면적으로 두 가지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우선 숨쉬는 것이 조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뒤에 공간이 많은데도 걸린 바로 앉아서 바빠달라 앉아 모두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학생 가운데 조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수업시간은 물론 자율학습 시간까지도 교실마다 정적이 감돌았다. 丁희강은 종도학원 전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종교학원』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잡혀 있습니다.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죠. 특히 선생님들이 주의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학원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한다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학생들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또하나 특징적인 것은 미리 일석이이나 퍼머를 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남학생의 경우 컷오프로 내려오는 장발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생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나 용모는 볼려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머리 염색과 머머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술과 담배, 모자, 귀고리, 트레이닝복, 치마, 반바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他人에게 혐오감을 주는 화장을 해서도 안 된다.

복색, 싸움, 가솔 파지, 월간 생리, 월화생 피복하는 행위, 지도교사에 대한 반항, 교직원과의 공부장 지시 거역, 사형 및 도박 행위, 수업 중 핸드폰 사용과 어쩔만 사용 등도 금한다. 당구장 오븐식 노래방 주점 등에 출입을 금하는 등 그 외에도 금기 사항이 많았다. 이런 사항을 어길 때마다 즉각 벌금이 주어지며 벌금이 20점 이상 될 때는 제적된다.

강남 캠퍼스의 白背鯊 상담실장은 학생들이 미리 종교학원이 엄격하다는 것으로 알고 각오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적응을 잘하지만 가끔 협박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

『얼마 전 한 남학생이 머리 염색이 짙거나 나빠지면서 자퇴서를 냈습니다. 작은 걸 포기하고 한 걸 얻으라고 몇 번 설득했지

만 학생이 뜻이 완강해서 결국 자퇴를 했어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학생을 다시 학원으로 보냈거든요. 머리를 다시 짙게 물들이고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엄한 학칙을 건디지 못하거나 성격 부진 등의 이유로 매년 3% 가량의 학생이 白背鯊를 한다고 한다. 丁虎장은 이런 강력한 규제가 때때로 지기 쉬운 제수생들의 정신력을 높여 준다고 말한다.

『학생들에게 생활의 구심점을 갖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 수학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정신력을 다져야 합니다. 규율 속에서 살면 비록 학원에 다니지만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되고 하원 된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丁虎장은 다른 부분에서도 고집이 있다. 어느 해인가 영어도 다른 외국어와 함께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많은 입학생들이 일본어를 선택했다. 그때 종교학원은 『영어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은 먼저 앉겠다』는 공고를 냈다. 그런 공고에도 학생들이 몰려왔다. 요즘 理科 2차평 가운대 물리·화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종교학원은 물리·화학 선택 학생이 가장 많다고 한다.

종교학원생만 받아들이는 學舍가 10여 곳

白背鯊 상담실장은 이렇게 말한다.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이 성격이 많이 오릅니다. 단 양면화면인 복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 성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 다음은 강북 학생들이 성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나 강남 학생들은

성격이 오르지 않고 그 복이 그리 크지 않죠. 강남 학생들이 제학시절 교육욕이든 靑교육이든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만큼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지요.』

시골 출신들의 성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그만큼 유혹이 적은 이유도 있다고 한다. 시골학생들은 대개 學舍(학사)라는 곳에서 학수생활을 한다. 종교학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숙사는 없지만 종교학원 학생들만 받아들이는 學舍가 서울 시내에 10여 곳에 이른다. 이런 학숙집에 들어가는 때도 경장이 치열하다고 한다. 학숙집에서는 자유생활이 끝나는 시각에 학원 운영체 학생들을 집으로 실어 나르는데 그곳도 규칙이 엄하다고 한다.

저장학생들이 학숙집이 아닌 친척집에 머무르고 싶다고 할 때 白背鯊 상담실장은 이모-고모-외조모-큰아버지-작은아버지 순으로 권한다고 한다.

金利難 학감은 눈이 좋아하거나 이상친구를 사귀는 학생은 제수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제미있지는 형상은 남학생은 연애를 하면 심중왕구는 성격이 남이되고 여학생은 성격이 좋아진다고 한다. 가정행편이 어려울 아프리카이트를 해야 할 임정기라면 제수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시간을 완전히 투자하지 않고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는 의미이다.

金利難 학감은 공부에 흥미가 많은 학생, 목표가 분명한 학생은 제수를 시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성격이 단호하고 목표가 분명한 학생은 부모의 권유에 못 이겨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뒤늦게 제수대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6월 말에 권원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그때가 되면 고득점자가 불린다. 金利難 학감은 이 경우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대학을 한 학기 다니고 휴학계를 내고 시험 준비를 하려는 학생들입니다. 대개 명문대에 다니지만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옮겨는 학생들입니다. 아예 1학기 때 등록한 과를 바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몇 여제도 갈 때가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이런 학생들은 결과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빼는 일도 되기 때문에 제수를 하려면 아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낫죠.』

丁虎龍 虎장은 이 정권 들어서서 『新지식인』을 선정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말한다. 코미디언이 제1호 新지식인으로 선정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지식산란 코미디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붙여야죠. 코미디언에게 『지식인』이라는 호칭은 붙인 것은 잘못입니다. 지식인이라는 개념이 잘못되었는지 교육목표 지표를 혼동해 놓았습니다. 아슬리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정박이 오늘날 교육을 일망모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理科가 부나니다. 서울대가 부나한다는 말을 하는데 교육이 부나지고 있다는 표현이 맞죠. 교육 자체가 부나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산속경제든 성장경제든 상황에 맞게 해도 되지만 교육은 상황에 맞추어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교육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漢字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가 고대어 서문 漢字교육은 안 되는 겁니다. 주권적으 공부하지 않은 세대가 주권직을 가진다 싶을 수 있었을 겁니다.』

丁희장은 38년 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입시제도의 변화를 고스란히 체험했다.

『어느 때는 입시과목을 많이 늘리라고 합니다.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면 기술과목을 늘리고, 안보가 중요하다는 여론이 있으면 안보과목이 추가되는 식이죠. 이제 는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과목을 줄이려고 할 때는 왜 줄였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늘리려고 할 때는 왜 줄었는지 따져 세심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뒷사람 말 한 마디에 교육정책이 휘둘 바뀝니다. 교육이 방향도 지표도 없이 흔들려요』

그는 지도자들이 「이것저것 어설피게 알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개탄했다. 그는 요즘 영어 교육을 예로 들어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영문학자의 학문적 영어와 호텔 레이디의 생활영어는 달라 취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영어 조기교육은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상식을 혼동하고 있죠. 현재 교육은 실용성, 취업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학생이 빈대·외대에 떨어는 건 국력남비』

요즘 우수한理科生들의 목표는 대개

지과대, 의대, 한의대이며,文科 우수생들은 법대를 지망한다고 한다. 丁희장은 우수한 학생이 의대와 법대에 가는 것은 국력남비라고 말한다.

『법대는 머리 좋은 애들보다 건전한 상식의 소유자들이 가야 하고, 의대도 반드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정말 머리 좋은 애들은 법의학과 기초의학을 전공해야 하는데, 철학과는 문 닫고 기초학문은 외면되고 있지요』

중요학원 理科 학생들 역시 30% 이상이 의과나 한의대를 지망한다고 한다. 공대를 기피하고 의대와 법과를 지망하는 경향은 IMF 관리체제였던 1997년 이후부터 심화되었다고 한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 서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한 뒤文科에서理科로,理科에서文科로 옮길 수 있는 교차지원 제도가 생긴 뒤 고교의理科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1학년도 수능시험이 쉬웠다가 2002학년도에 다시 어렵게 출제된 것에 대해 丁희장은 먼저 시험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험은 어떻게 낼 필요도, 쉽게 낼 필요도 없습니다. 고교 수학능력을 검증하

든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검증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변별력이라는 것은 점수 차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변별력이죠』

『경쟁은 모든 것의 기본』

丁희장은 5권 시절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代表」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청와대에 제출했다. 골자는 「교육에 사회변화를 반영시키지 말라. 교육의 목표를 세워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에서 채택하겠다는 답신이 왔다고 한다. 근간에 교육정책에 관한 제안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교육정책이 표를 의식해서 바뀌면 안 됩니다. 교육정책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소문을 어디로 가느냐 외는 한 때나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이 많겠지 하는 생각에서 교육정책을 세우면 안 됩니다. 교육은 확실한 철학과 목표 아래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丁희장은 입시제도위원회를 설립하여 어떤 정권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경이 어렵다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성경을 재미있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직자에 의해 연구되어야 하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디. 외부의 압력 없이 전문가가 독자적인 교육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는 고교평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경쟁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평준화를 강조하면 윤리적이고 월드워드로 할 이유가 없죠. 정당한 경쟁은 중요합니다. 경쟁에서 지는 학생을 버리지 않고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과열 과잉을 문제라고 하는데 과잉이 뭐가 나쁜지나,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건 좋은 일이지. 비열 교육개혁, 죽김게 과잉이 나쁜 겁니다. 우리 국민은 한방에 끝내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죽김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는 평준화정책은 한 편의 평준화가 아닌 전국의 한 학년 전체를 평준화하는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반에 35명이 있고, 전국에 같은 학년이 5만명 있다고 합시다. 평준화 정책으로는 한 교실에서 1등과 35등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1등과 5만등이 공부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 되는 일이지』

외국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일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사회적 바탕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 교육의 경우 미국 후진사회의 공공육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 인종 사회의 교육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명문고등학교가 사라진 지금 그는 영국의 이튼 스쿨이 부럽다고 말한다.

38년 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학생을 겪은 丁희장에게 학생들의 변모과정 을 들어봤다.

Multi & Mega Vitamins

유유산업(주)

옥채피로, 눈피로, 신경통, 근육통, 수족저짐에

비나폴로® EXTRA

엑스트라

정제된

Gyuu

『절정 학력이 저하되고 학생들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책가방을 갖고 다니기 싫어해요. 할 수 없이 우리 학원도 지난년부터 사물함을 만들어 주었죠. 학생이 책을 안 갖고 다니려고 하니 참... 버릇이 없고 반항적입니다. 논리성이 부족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의 말을 많이 하죠. 요즘 학생들은 성격이 나쁘게 나오면 "제도가 잘못되었어, 재수없어서 그렇게 됐어"고 합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의 탓에도 일리가 있어요. 언젠가 라디오에서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지 모르니 화상실에 갈 때도 라디오를 갖고 가라"고 하던데 공감 가는 얘기예요. 이러니 아이들이 남의 말을 하게 되죠.

『교육육만 제대로 해 주죠』

그는 학생들의 정신교육을 위해서 석학들을 모셔서 비디오로 강의를 들려 주었으나 학생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만 두었다며 아쉬워했다.

『서울대 다닐 때 강당에서 최남선 선생 강의를 여섯 시간 들었던 것이 늘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연세대 김형식 교수님, 도을 김용욱 선생 등 여러분을 모셔서 학원생들에게 인생교육을 시켰는데 반응이 신통찮아요. 강당이 없어서 비디오도 볼 수 없어 그렇기도 하지만 우선 아이들이 인생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재수생이 절절 끓어오르는 추세이다.金利權 학감은 학생들이 끓어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종로학원이 위기를 면하지 않으며,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丁廣錫 회장은 학원 운영자로서 나라에 바라는 점이 없다고 했다.

『교육육만 제대로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학원이 꼭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이 사라지고 교육이 절되는 게 이상적이지요』

38년 간 학원 사업을 해 온 丁 회장의 사업확장은 1995년 강남에 학원을 한 곳 더 신설한 것이 전부이다. 종로학원에서 시행하는 학력평가사업은 오히려 적자라고 한다. 그는 영원한 학원인으로 머물고 있지만 그의 둘째 아들 해승씨는 학원체인 사업과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는 이뿌넷 대표로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丁 회장의 큰아들 태영씨는 현대자동차 경봉구 회장의 사위로 현대인이 되었다.

우리 사회 네트와 하는 유명인 가운데 종로학원 출신이 즐비하다. 丁 회장은 유명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종로학원을 끼워넣지 않는 일이 심심하지 않다고 한다. 가끔 예전의 담임선생을 찾아오는 학생도 있거나 그리 멀지는 않다고 한다. 丁 회장은 학원 운영으로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재수시켜서 좋은 학과에 넣었다는 것에 만족을 느껴지요.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외에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丁 회장은 38년 학원 운영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 사회 한 모퉁이에서 확실히 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교육육의 보람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파멸한 학생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에 의미를 느끼죠.』

창간 22주년

기념호 특집

頂上에 서야 頂上이 보인다

세계를 주름잡는 9명의 한국 출신 예술가·스포츠맨·배독기사들. 그들의 內面과 실력을 잘 아는 同業 스타들의 심층 탐구

굵은 참나무에서 밝고 짙진 불꽃이 타오르듯 단단한 內面에서 뿜어내는 天才性은 영원하다

스타의 스타論

1 曹薰鉉의 李昌鎬論

2 嚴正行的 曹秀堧論

3 文晔湖의 姜秀珍論

4 許電淵의 朴贊濤論

5 金容沃의 白南準論

6 金大顯의 白建宇論

7 韓聖조의 李鳳柱論

8 鄭一美的 朴世烈論

9 鄭一成的 林權澤論

